



‘책, 세상을 열다’ 제1차 공감포럼 개최 ‘전통의 재발견’ 주제로 삼국유사·만들어진 전통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선일보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공감포럼 ‘책, 세상을 열다’가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부터 KT 광화문지사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렸다. ‘책, 세상을 열다’는 올해 말까지 총 6회가 진행되는 공개포럼으로 2권의 책을 선정해 유명 저자와 학자, 낭독 전문 연극배우가 출연하는 공개토론회 및 낭독회로 진행된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제1차 공감포럼은 ‘전통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일연의 ‘삼국유사’와 에릭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이 선정됐다.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가 ‘조선시대는 책 읽는 시대, 지식 기반 사회였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발표했으며, 정수복 작가 겸 사회학자의 사회로 고운기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삼국유사’에 대해, 강성호 순천대사학과 교수가 ‘만들어진 전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허영자 시인(성신여대 명예교수)이 ‘모순의 향기’를 낭독했으며, 신종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과 교수, 윤해동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조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책 속에서 세상을 여는 지혜를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 여름의 비소식처럼 유쾌한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포럼은 인문정신문화의 가치 확산과 책읽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독서 붐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제1차 공감포럼을 시작으로 매달 다른 인문학적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운기 교수 “삼국유사 : 재발견 너머의 문제들”

중앙승가대학의 불교학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현

재 삼국유사를 연구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물로 2186편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고 한다. 논문과 저서에는 각종 판본, 번역본, 비첩, 색인 등을 제외하더라도 해제, 역사, 사상 종교, 사회 민족, 고고 미술 음악, 신화·설화, 문학 일반, 이두 향가, 어학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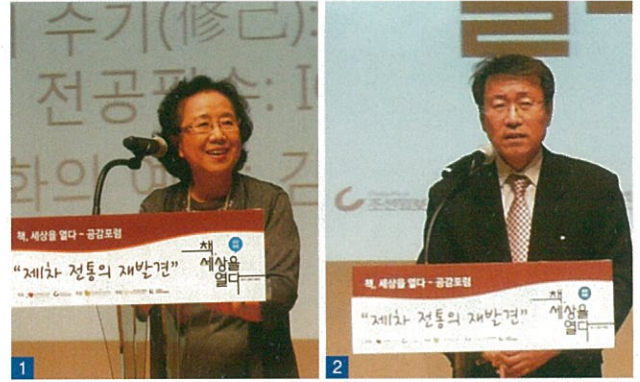
하지만 13세기 후반에 간행되었을 ‘삼국유사’ 초간본은 그 전본을 잃은 지 오래다. 초간본의 간행 사실에 대한 단서조차 얻기 힘든 상황에서 크게 두 종류의 원본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고판본으로 불리는 조선 초기 간본이며, 다른 하나는 중종 임신년(1512)에 간행된 이른바 경주본이다.

고운기 교수는 “일반적으로 삼국유사는 ‘13세기 승려 일연이 지은 것이며, 삼국사기와는 달리 고대 삼국의 야사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고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삼국유사는 오랫동안 사랑받은 책이 아니라 거의 잊힐 뻔 했다가 겨우 살아난 책”이라고 설명했다. 고운기 교수는 “2006년은 일연의 탄생 800주년이었다. 1206년생인 그가 80세 전후에 삼국유사를 편찬했으니 삼국유사의 탄생은 700여년 전 쯤이 된다. 처음 삼국유사가 발간되고

200여년 만인 조선 중종때 경주에서 한차례 더 인쇄됐지만 적어도 조선시대 내내 널린 익힌 책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삼국유사의 재발견은 1904년 일본 도쿄대학 사지총서에 ‘삼국유사’가 포함되면서 이뤄졌다. 당시 임진왜란 때 들고 간 원본을 근대식 활자로 인쇄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15년에는 일본어로 번역된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식민지 경영의 기초사업이라는 목적의식이 들어있었으리라 본다. 한국인의 뿌리와 심성을 알아야 했을 것이고, 일정 부분 저들의 역사와 겹치는 고대사를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자면, 학자들의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도가 무엇이었던 이로 인해 도쿄에 유학중이던 우리 젊은이들은 자극을 받아 이 책을 읽으며 새로운 민족주의의 논리를 개발하는 자료로 공부했다. 고unki 교수는 “오늘날 삼국유사 가운데서도 단군신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이 책의 연구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한편이야말로 우리의 뿌리를 알려주고, 민족주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같은 책을 가지고 한쪽은 식민지 경영의 정보원으로 다른 한쪽은 제국주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성호 교수 “만들어진 전통과 만들어야 할 전통”

세계적인 역사가로 잘 알려진 에릭 홉스봄(1917~2012)은 1940년대 중반부터 역사가로 활동하기 시작해 7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 왔다. 그는 20세기 초에서 21세기 초에 이르는 격동의 한 세기를 직접 겪었다는 점에서 행복한 역사가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는 서구의 어떤 역사가들보다 한국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의 저작 대부분이 한국에서 번역돼 출판됐다. 강성호 교수는 “‘만들어진 전통’을 보면 오래된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영국 왕실의 화려한 공식의전이나 스코틀랜드인들이 입는 킬트 옷이 먼 고대시기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18~19세기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과거 전통들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 속



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보존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홉스봄은 민족이나 민족주의가 근 현대시기에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본다. 홉스봄은 이슬람 국가의 종교적 근본주의나 파키스탄의 민족주의는 근거없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민족신화’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내고, 극단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홉스봄은 역사가들은 냉정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객관적 인 사실에 근거해 과거를 볼 것을 요구한다. 강성호 교수는 “그렇다면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역사의 뒷무대로 퇴장해야 할 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나친 민족주의 과잉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버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현 상황에 맞고 한국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주의 전통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계층과 관점들 사이의 열린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들게 될 민족이나 민족주의는 기존보다 훨씬 나은 내용을 지니게 될 것이다. 민족이나 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형식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전통도 마찬가지다. ‘만들어진 전통’이 더 이상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다시 ‘새로운 전통’을 같이 만들어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1. 기초강연을 하는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 2. 인사말을 하는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3. 삼국유사에 대해 발제하는 고unki 교수 4. 만들어진 전통에 대해 발제하는 강성호 교수